

濟州島方言의 喉音

姜 榮 峯*

目 次	
I. 序	III. 喉頭閉鎖音
II. 喉頭有聲音	IV. 結 語

I. 序

濟州島方言研究史를 조감해 볼 때 音韻論과 形態論은, 統辭論·語彙論·意味論에 비하여 꽤 진척이 된 편이다.¹⁾ 음운론에 있어서도 /·(ɐ)/음을 비롯하여 /··(yʌ)/, /·(ɛ)/등 주로 母音에 편중, 몇몇 學者에 따라 研究된 바 있으나, 子音에 대해서는 다른 方言 子音體系에서와 같이 '이렇다 할 특이한 것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지나쳐 버리고 있다. 같은 方言이면서도 母音은 몇몇 學者에 의해 연구업적이 쌓여진 반면, 子音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어서 筆者로 하여금 子音도 母音과 같이 特異한 언어사실이 없겠는가 하는 소박한 의문을 품

* 耽羅文化研究所 助教

1) 濟州島方言研究史는 다음 논문을 참조.

玄平孝(1979):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 「方言」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金榮教·申幸澈·姜榮峯(1982): "解放後 濟州研究概觀: 語文學·民俗分野", 「耽羅文化」創刊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게 한다.

中世國語의 /-o-/만 하더라도 李基文(1977)에 의하여 적극적인 기능을 지닌 喉頭有聲音 /-o(f)/이 지적되고 나서 濟州島方言에서 玄平孝(1979)에 의해 喉頭有聲音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玄平孝(1982)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音素로 설정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濟州島方言의 子音體系 中 喉音에 주된 관심사를 두고, (A)玄平孝에 의하여 어엿한 하나의 子音音素로 설정된, 15·6세기 적극적 기능을 지닌 喉頭有聲音에 대하여 많은 語例를 찾아 音素로서의 정당한 짐을 부하하는 한편, (B) 다른 方言에서 調査 報告되고 있는 喉頭閉鎖音²⁾ /'/'은 本島方言에는 없겠는가 하는 개연성 탐색에 집중된다.

여기서 논의대상이 된 자료들은 濟州島方言 語彙集인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資料篇》(玄平孝, 1962), 《제주방언연구》(朴用厚, 1960), 《濟州島方言集》(石宙明, 1947)을 參考로 하여 對象語彙를 추리고 난 후 筆者가 1982年 11月에서 1983年 1月 사이 西歸浦市, 南濟州郡 南元面, 表善邑 일대 地名調査와 결하여 띄엄띄엄 調査 확인한 言語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發話에서 실현되는 音聲을 考察하는데는 主觀的 입장과 客觀的 입장이 있을 수 있다. 主觀的 입장이란 原語民의 音韻意識을 중시하여 고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客觀的인 입장, 곧 觀察者의 입장은 言語學者가 原語民의 發音을 하나 하나 觀察, 考察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前者에서는 發話되는 音 自體는 별문제 가 되는 게 아니라 話者의 發音意識, 發音理想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 音韻意識이란 직접 觀察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後者는 話者가 구체적으로 發話하는 音 自體를 대상으로 하여 一回一回 發音되는 현실음에 충실하여 觀察해 가는 것으로, 音 觀察의 理想的인 方法에 속한다. 여기서는 後者의 입장을 취한다.

2) 이 喉頭閉鎖音은 李翹燮(1972, 1981), 崔明玉(1978, 1980, 1982)에 따라 各各 강릉 방언, 東南방언에서 하나의 音素로 확인되고 있다.

II. 喉頭有聲音

國語에서 /o, ㅜ, ㅎ, ㅝ, ㅞ/ 등 일련의 喉音들은 訓民正音의 子音體系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³⁾ 이 계열이 정립된다면 國語의 子音體系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수립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濟州島方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음계열은 별문제가 없지만 이 喉音系列만은 문제의 대상으로 아직껏 남아있다고 본다.

우선 여기서는 喉頭有聲音이 音素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을런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李基文(1977)에 따라 /-o-/은 기능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갖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二種으로 구분하고 있다. 적극적인 기능을 지닌 /-o-/은 ‘로’와 같은 音聲的 環境에서 [h]로 실현되는 喉頭有聲音을 설정하고 있다.

濟州島方言에서는 玄平孝(1982)가 이를 토대로 하여, ‘불이(根), 멀이(葡萄), 꼴이(粉), 뉘이(宗)’ 등 方言形들이 [puri, mæri, keri, meri]로 발음되지 않고, 第一音節과 第二音節이 구분하여 [pul-i, mæl-i, kæl-i, mæi]와 같이 발음되고 있어 第二音節의 /-o-/이 아무런 音價도 없는 字形構成上 虛字가 아니라, /-l-/과 /-i-/ 사이에 어떤 子音的 要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15,6 세기의 喉頭有聲音 [h]의 殘在로 보고 있다. 결국 喉音系列에 音素 /-o-/ 하나를 더 설정. 20개의 子音體系⁴⁾를 세우고 있다.

3) 李基文(1977):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p.15.

徐煥錫(1981): “中世國語의 喉音研究”, 「韓國文學研究」 제3집,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pp.256~260 ‘從來의 學說’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4) 제주도방언의 자음계열을 아래와 같이 보이고 있다.

위에 든 ‘불어(根), 멀이(葡萄), 곶이(粉), 물이(宗)’ 등은 그 音聲 的 環境이 /-l-/과 /-i-/ 사이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李基文(1977:19)에 의하면 적극적 기능인 喉頭有聲音 /-o(fi)-/가 실현되는 環境으로 (a) r-v⁵⁾, (b) z-v, (c) y-v 를 들고 있다.⁶⁾ 편의상 여기서도 (a)型에 속하는 語彙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u>St. Lang.</u>	<u>Utterance</u>
ㄱ. 물감(染料)	[mulhe], [mule]
ㄴ. 고리(環)	[kəlhi], [kəli]
ㄷ. 이레(七日)	[ilwe]
ㄹ. 바름(直)	[palum]

(I)은 名詞 또는 名詞形들이다. 여기서 문제는 方言形에서의 /-l-/이 표준어에서와 같이 /-r-/로 실현되지 않느냐 하는 데 있다. 곧 (1.ㄱ~ㄹ) 들은 각각 [mure, keri, irwe, parum] 등으로 발음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들 어휘에서 /-l-/이 /-r-/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ㅂ ㄷ ㄱ ㅅ ㅈ ㅎ
 ㅍ ㅌ ㅋ ㆁ
 ㅃ ㅆ ㅍ ㅈ ㅊ

○

ㅁ ㄴ ㅇ
 ㄹ

5) V는 모음임

6) 각 음성적 환경에 따른 例들은 다음과 같다.

- (i) r - v : 물애(沙), 놀애(歌), 놀이-(使飛), 살이-(使生), 곶아
 마괴(寒鴉), 노르(獐), 오루-(登) 등
- (ii) z - v : 쫄애(剪), 걸위(蚯蚓), 웃이-(使笑), 짚이-(使作), 아
 소(弟), 여소(狐), 박수-(碎) 등
- (iii) y - v : 두외-(爲), 여외-(離), :디-(使落), 비애(梨補) 등

李基文에 의하면 (a)r - v, (b)z - v, (c)y - v에서 喉頭有聲音 [h]는 한결 같이 /ㄱ(k.g)/에서 변화된 것이나 (ㄱ>ㅇ) 아니면 /ㄱ/에까지 소급할 수 있는 特徵을 들고 있다.⁷⁾ 결국 (a.b.c)型에서 각각 先行音節 末音인 [r.z.y]들은 그 다음 音節 첫소리(初聲) /ㄱ/이라는 ‘子音 要素’ 때문에 末音 위치에 그대로 묶여 다음 음절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1, ㄱ, ㄴ)의 ‘물감(染料)’, ‘고리(環)’에 해당되는 方言形은 [mulhe] 또는 [mule], [kelhi] 또는 [keli]로 실현되나 /-h-/음을 유지하고 있는 前者, 곧 [mulhe, kelhi]가 우세한 편이다. 이들 發話에서는 喉頭有聲音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喉頭有聲音이 지닌 音聲의 環境에서 ‘ㄱ>ㅇ’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h/음이 有聲音 사이에서 省略되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에 속하는 현상이긴 하지만 (許雄 1970:183), 崔明玉(1982)에 따라 月城 地域에서 나타나는 ‘h>k’ 音韻現象⁸⁾을 대입시켜 본다면 매우 生産的임을 알 수 있다. 이 ‘h>k’ 現象이 주로 /l/音 뒤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대상어휘에 꼭 들어맞기 때문이다. 곧, [mulhe]는 ‘mulhe>mulke[?]>mulhe’로, [kelhi]는 ‘kelhi>kelki[?]>kelhi’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 ㄱ, ㄴ)에서 첫음절 末音 /-l-/이 다음 음절 첫소리로 내려서지 못하는 것은 /h/라는 子音 要素⁹⁾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1.ㄷ.ㄷ)의 경우는 좀 다르다.

(1.ㄷ)의 [ilwe]는, ‘글왈(文)’에서 첫음절의 /-l-/을 그 위치에 묶어두는 역할이 [wal]의 [w]인 것과 같이 [we]의 [w]로 인하여 /l/을 그냥 첫음절의 末音 위치에 고정되고 있는 것이다. (3.ㄱ)에서 언급할 ‘슬오리(靑願麥)’인 경우도 ‘슬’과 ‘보리’의 복합형인 ‘슬+보리’에서 나

7) 注 6)에 例로 든 어휘 참조.

8) 자세한 논의는 崔明玉(1982)의 「月城 地域語의 音韻論」, pp.76~80 참조. 여기서 논의가 된 ‘고리(環)’가 ‘/kolki/로 보코되어 있어 본도 방언에서 발화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으나 /-k-/음은 실현되지 않았다. 앞으로 탐색해 볼 문제로 남겨 둔다.

9) /h/音의 속성으로 보아 h>k의 /k/로 본다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은 것이고 보면, /p/가 ㅂ > ㅅ 변화 과정을 거쳐 /o/가 되었음이 분명한 사실이니 그 基底形은 [*O]가 될 것이다. 이 때 [*O]에서 [*w]가 子音的 要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그 先行音節 末音 /l/을 그 자리에 고정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1.ㄷ)의 ' ilwe '는 '일곱째의 날'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어휘로, 숫자 '七'에 해당하는 方言形 '일곱'에다 '日'에 해당되는 '일'이 연결되어 형성된 어휘라 보인다. '일곱+일'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보면 [ilwe]의 [w]는 '일곱'의 /p/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w]가 先行音節 末音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ㄷ)의 [palum]은 '발우다(바르게 하다)'의 名詞形이다. 여기서도 첫 음절 말음 /l/이 그 다음 음절 첫소리로 내려서지 못하고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l/이 그 다음 음절로 넘어서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루다'의 方言形은 '발우다, 발위다'가 있다. 표준어에서도 '바루다'는 '바르다'라는 형용사에 /-우-/라는 接尾辭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로, 방언에서도 '바르-'에 접미사 /-우-/가 연결되어 '발우다'가 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바르다'의 제 2음절 初聲이 제 1음절 末音으로 올라붙은 데 있다.

使動 및 被動의 派生接尾辭 /-오(우)-/는 /-ㅎ(보)-/에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李基文 1977:23), 語幹 '바르-'에 연결된 接尾辭 /-우-/도 원래의 모습에는 /ㅎ/라는 子音的 要素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깐 '바르+보'로 보면 /ㅎ/라는 자음적 요소로 말미암아 제 1음절 초성으로 올라간 /l/이 제 1음절 종성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u]도 그 基底形으로 [*wu-]로 보고 [*w]요소 때문에 /-l-/의 위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用言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	<u>St. Lang</u>	<u>Utterance</u>
	a { ㄱ. 시리다	[silhida]
	ㄴ. 이루다	[iluda]

b	ㄷ. 잣히다	[ppuluda]
	ㄹ. 바루다	[paluda]
	ㅁ. 얼이다	[əluda]
	ㅂ. 조리다	[ʃoluda]

(2)의 예들은 用言으로서 ‘ l - v ’ 사이에서 / l /이 첫음절 종성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어에서는 다음 音節 初聲으로 내려가 / - r - /로 발음되고 있지만 本島 方言에서는 그렇지 못한 형편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喉頭有聲音 [h]을 찾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2-a)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a)의 경우는 전형적인 환경에서 喉頭有聲音이 실현되는 예들이다. (2-ㄱ)의 경우, 原語民에 의하여 [silida]로 發話되는 경우도 가끔 접할 수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silhida]가 우세한 편이다. 일단 發話에 주요 관심사를 두고 살피는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音韻現象을 두고 보더라도 [sil-]의 / - l - /이 제 2 음절로 내려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h] 음이라는 子音 要素 때문이다. (1.ㄱ.ㄴ)에서 본 바 있지만, 적극적인 기능을 띤 喉頭有聲音이 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음성적 환경과 함께 ‘ ㄱ > ㅇ ’이라는 음운현상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勿論 앞에서 ‘ h > k ’란 음운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silhida]는 ‘silhida > silkida > silhida]가 되어, [l]이 첫음절 종성으로 남아있게 된다.

(2.ㄴ)의 方言形 [iluda] ¹⁰⁾는 표준어로 ‘ 이루다(成)’와 ‘ 일구다(耕)’에 對應하는 어휘이다. ‘成’의 의미로 사용되나 ‘耕’의 뜻으로 사용되나 / l /이 첫음절 말음으로 남아있게 하는 이유 설명은 가능하다. ‘成’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먼저 보기로 하자.

‘ 이루다 ’의 中世語는 ‘ 일다 ’이다. (이러, 일어서늘, 일어늘, 몬이나, 이룬 시릴씨 等. 이상은 龍飛御天歌의 例이다.) ‘ 이루다 ’가 自動詞 語幹 ‘ 일- ’에

10) 玄平孝의 방언집에는 ‘ 일우다(成)’의 의미로만 언급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 일우다(耕)’의 의미로 파악되기도 한다.

○ 태역밭 일우당 보낸 ‘ 탁 ’하고 알 바치는 거라 마씀.

접미사 ‘-우-’가 연결되어 형성된 어형이라고 한다면, 이때 접미사 ‘-우-’도 中世語 /뵤(뵤)/에 소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u]도 실상은 그 基底形으로 [-wu-]를 설정해야 하며 이 [w]라는 자음적 요소로 말미암아 /l/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

다음은 표준어 ‘일구다’에 對應하는 어휘로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전형적인 음성적 환경에서 ‘ㄱ>ㅇ’이란 변화가 적용된다. 곧 ‘일우다’의 ‘-우-’는 ‘r-v’라는 음성적 환경에서 ‘ㄱ>ㅇ’의 과정을 거쳐 변화된 것으로 이 /-o-/으로 하여서 첫음절 말음을 제 2음절 초성으로 내려서지 못하게 하고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다음 (2.b)의 方言形들은 /-오-/나 /-우-/를 갖고 있어 접미사 /-뵤(뵤)-/에 소급되는 어휘들이다. (2.c)의 [ppuluda]는 語幹 ‘뵤-’에 접미사 ‘-뵤-’가 연결된 것으로 제 2음절의 [-u-]는 그 基底形으로 [-wu-]이며, 이 [w]요소로 말미암아 첫음절의 말음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있다. (2.c)의 ‘바루다’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바르+우-’로, 接尾辭 ‘-우-’는 /뵤/에 소급 가능한 것이니 제 2음절의 [-U-]는 [-wU-]가 되고 이 [w]로 해서 /l/이 첫음절 종성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며, (2.d)의 [aluda]의 경우도 ‘얼-’에 접미사 /뵤/가 연결된 形態로 [-wu-]를 基底形으로 보아야 하며, (2.b)의 [čoloda]의 제 2음절 [-o-]도 그 기저형으로 [-wo-]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čoloda]는 語幹 ‘조르-’에 接尾辭 ‘-오-’가 연결되어 형성된 어휘이기 때문이다. 이 [w]로 하여 /l/음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1), (2)를 통하여 /-l-/음과 母音 사이에 內在된 어떤 要素가 있어 이로 말미암아 /-l-/음을 다음 音節로 내려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子音의 要素를 찾아보았다. 이를 明證하기 위하여 (3)을 보기로 하자.

(3)	<u>St. Lang</u>	<u>Utterance</u>
	ㄱ. 쌀보리	[sɔ̃lɔ̃ri]
	ㄴ. 말하다	[sɔ̃luda]

(3.ㄱ)의 [sɛlɔri]는 ‘슬(米)’에 ‘보리’가 연결된 복합어로 ‘슬보리 > 슬보리 > 슬오리’의 발달을 거친 것이다. ‘슬오리’에서 ‘-오리’의 본딤 말이 ‘보리’이고 보면 ‘오-’는 ‘보-’가 변해서 된 것이니 /-오-/에는 /ㅂ/의 요소가 겹으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ㅂ/이라는 자음 要素가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오/는 단지 [o]로 볼 것이 아니라 [wO]로 [w]가 內在되어 있어 이 [w]라는 음성적 요소가 그 앞의 /-l-/음을 다음 音節로 내려서지 못하게 하고 첫음절의 末音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3.ㄴ)의 ‘슬우다’도 원래는 中世語 ‘슌다(白)’에서 온 말이다. ‘슬우다’가 ‘슌다’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슬우다’의 /-우-/는 ‘슌다’의 /ㅂ/이 변모된 모습이 분명하다. 그러니 제2음절 [U]에 자음적 요소가 內在되어 있으니 [-wU-]가 될 것이며, 이 [w]가 자음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l-/을 末音의 위치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 (2), (3)을 통하여 /l/이 /r/로 실현되지 않을 때, ‘ㄱ’과 ‘모음’ 사이에 子音 要素가 內在되어 있음을 確認하였고, 이 子音 要素로 말미암아 ‘ㄱ’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있음도 알아보았다.

子音 要素는 ‘(ㅎ) > ㄱ > ㅇ’ 또는 ‘ㅂ > ㅃ > ㅇ’ 과정을 거친 /-o-/들이다. 이 /-o-/의 정체는 무엇일까?

위에서 살펴본 /-o-/은 ‘ㄱ’과 ‘모음’이라는 有聲音 사이라는 음성적 환경을 이루고 있으니 첫째 유성음이어야 할 것이다. 先行音節의 末音 /l/을 다음 音節로 내려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이에 ‘內在된 子音 要素’이니 그 요소는 겹으로 나타나지 않는 속성을 들춰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켜 주는 子音を 찾는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音素가 될 것이다.

유성음 사이에서 /h/음은 표면에 잘 실현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가 찾는 음은 다른 어느 子音系列보다는 喉音系列이어야 한다. /h/音과 同系列이면서 有聲音 사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자면 자연 /-o-/일 수밖에 없다. 訓民正音 制字解에도 ㅅ, ㄴ, ㅁ, ㄹ, ㅌ과 ㅇ를 包含해서 不淸不濁

音으로 다루고 있음에 주의하고자 하며 또한 字形에도 주의하고자 한다.¹¹⁾ 字形이 그냥 /o/이라고 하여 그냥 음가가 없는 게 아니라, 音韻變化를 거친 /-o-/을 고려해 보고 위의 여러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찾는 音은 喉頭有聲音[h]가 自明해진다.

Ⅲ. 喉頭閉鎖音

濟州島方言에서 喉頭閉鎖音의 存在與否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方言에서 調査, 考究된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

江陵方言의 경우 李翊燮(1972:102, 1981:91)에 의하면 江릉방언에는 ‘ㄷ변칙’用言이 없어,

(A) (옷을 못에) 걸:구, 걸:드나, 걸:재, 걸:문, 거:니

(B) (걸음을) 걸:꾸, 걸:뜨나, 걸:췌, 걸으믄, 걸으니

와 같아 (B)의 語幹에 [kaɪ'-]과 같은 무엇이 있음을 감지하고 하나의 독립음소인 喉頭閉鎖音을 인정하고 있다.

崔明玉(1978:77~78)도 東南方言에서 재구조화된 /-ɪ-/과 그렇지 않은 /-ɪ-/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i) 원래의 /Xɪ-/의 /-ɪ-/은 형태소 경계에 따르는 p.t.k.c 등을 된소리화 시키지 않으나 /t↔ɪ/로 재구조화 된 /ɪ/은 그러한 음소

11) o에 대한 訓民正音의 중요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o 喉音 如欲字初發聲.
- (2) o 象喉形.
- (3) o ㄴ 口 o ㄹ 口 爲不清不濁.
- (4) 蓋喉屬水而牙屬木 o 雖在牙而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 (5) 喉澀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多 於音爲羽牙鏞而長 木也 聲似喉 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於時爲春於音爲角.

들을 된소리화 시킨다.

(ii) 원래의 /X l - /은 형태소 경계 다음에 /n /이 삭제 되지만 /t ↔ l /의 /l /은 삭제 되지 않고 오히려 후속하는 /n /을 /l /로 동화 시킨다.

(iii) /z /로 시작되는 접미사 앞에서 원래 /X l - /의 /l /은 삭제 되지만 /t ↔ l /의 /l /은 삭제되지 않고 오히려 /z /가 /s /로 변하다.

또 하나의 特徵으로 ‘ㄷ ↔ ㄹ’의 변화를 일으키는 用言의 대부분 어간이 長音을 가지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崔明玉 1980:19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후두폐쇄음을 찾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ㄷ변칙’이 없다. ② /Xt / + p · t · k · s / → /p' · t', k', s' / ③ /Xt - / + /n / → /l /, ④ /Xt - / + /z / → /s /, ⑤ 장음 등 대충 다섯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주도 방언과의 대비를 통하여 후두폐쇄음을 조심스레 탐색해 보는 것이다.

우선 ‘ㄷ변칙’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傳統文法에서 ‘ㄷ변칙’이라 함은 ‘홀소리로 비롯한 씨끝이나 도움줄기의 앞에서 /ㄷ /이 /ㄹ /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崔鉉培 1971:339), 제주도 방언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4) ㄱ. 줄다(編)

(a) 줄고, 줄지, 줄단, 줄꼭말꼭……

(b) 줄고, 줄지, 줄단, 줄꼭말꼭……

ㄴ. 둔다(走)

(a) 둔고, 둔지, 둔단, 둔꼭말꼭……

(b) 둔고, 둔지, 둔단, 둔꼭말꼭……

ㄷ. 질다(渡)

(a) 질고, 질지, 질단……

(b) 질고, 질지, 질단……

(4)에서 보듯 제주도방언에서 /ㄷ /변칙은 표준어에서 처럼 규칙이 완전하게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4.ㄱ.ㄴ.ㄷ)에서 보면 活用形 (a), (b)들이 있는데 (a)

形이 우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b)의 세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지 조사에서도 노년층에는 (b)쪽이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는 듯 했다. 江陵方言과 같이 /ㄷ/변칙 用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규칙에 혼란이 일고 있어 변칙과 규칙의 중간상태(?)로 보고 싶다.¹²⁾

②의 조건 즉 /Xt-1 + /p, t, k, s/ → 된소리로 변모시키는 경우를 제주도방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③의 조건 곧 /X t -/에 접미사 /n/가 연결되면 /l/로 변모되는 경우는 가끔 확인할 수 있었다.

(5) 오늘밤의도 양태 줄랴?

(6) 이제도 돌랴?

(7) 속숨 못하고 또 꼴랴?

예문 (5)~(7)은 ‘줄+냐’, ‘돌+냐’, ‘꼴+냐’로 ‘-냐’라는 의문형 어미가 연결된 형태이다. 실제발화에서는 ‘오늘밤의도 양태 줄티야, 이제도 돌티야, 속숨 못하고 또 꼴티야’ 등으로 ‘줄랴, 돌랴, 꼴랴’대신에 ‘줄티야, 돌티야, 꼴티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前者의 경우도 접할 수 있었다. ‘-나 마나, -난, -냐, -네, -네다, -빙’ 등 /n/계통의 어미 중에서 유독 의문형 어미 /-냐/만이 /l/로 변모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만 喉頭閉鎖音을 찾는 요소 중 하나를 만족하고 있음에 주의해 두고자 한다.

세번째로 개연성을 탐색할 수 있는 조건은 ㄷ→ㄹ의 변화를 일으키는 용언의 대부분 어간이 長音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방언에서도 ‘줄:다(編), 길:다(汲)’ 밖에는 없는 것 같다. 慶北 東海岸方言에서는 이 사실은 혼동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장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ㄷ→ㄹ’의 변화를 보이는 ‘듣-(聽)’이 있는가 하면 장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얻:(得)’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문제를 정당화 시키는 데는, 설득력이 별로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¹³⁾ 이러한 결점은 제주

12) 제주도방언에서 변칙활용에 대해서는 別稿를 준비하고 있다.

13) 자세한 것은 崔明玉(1980) pp.190~192와 崔明玉(1982) pp.160~참조.

도 방언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묻다(問)’의 경우는 단음 이면서도 ‘ㄷ→ㄹ’의 변화과정 거치는가 하면(물으니, 물으면……등), 그 반대의 경우를 아직까지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제주도 방언에서는 재고를 요한다고 본다.

또 다른 하나의 개연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東南方言에서 /X 1/로 재구조화된 예로 든 어휘 ‘sil(載) - ’에 상응하는 제주도방언 어휘로는 ‘실르다, 시르다, 시끄다’ 등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육지어(특히 동남방언)에서 변화를 보이는,

$$\text{sil} + \text{ko} \rightarrow [\text{sil}k'o]$$

$$\text{sil} + \text{ci} \rightarrow [\text{sil}s'i]$$

등에서 k.c.가 k', s'로 됨에 주의하여 본다면 제주도 방언에서는 아예 된소리화되어 화석화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 - ’을 예로 들어서이기 보다는 이러한 用例가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본다.

이상으로 다른 方言에서 調查, 報告된 내용을 가지고 濟州島方言에서 喉頭閉鎖音을 찾기 위한 탐색을 해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좀더 면밀한 調查,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IV. 結 語

지금까지 濟州島方言의 子音體系 中에서 喉音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어에서도 喉音은 많은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는 子音系列로 본도방언에서도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玄平孝에 의하여 어엿한 하나의 음소로 설정된 喉頭有聲音과 다른 方言에서 調查, 考究된 喉頭閉鎖音의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을 탐색해 보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것이다.

- (1) 喉頭有聲音은 15.6세기 상태로 제주도방언에 존재하고 있다.
- (2) 喉頭有聲音의 음성적 환경은 ‘ㄹ’과 ‘모음’ 사이에 국한되어 있는 듯하다.
- (3) ‘ㄹ’과 ‘모음’이라는 음성적 환경에서 선행음절의 ‘ㄹ’이 다음 음절로 내려서지 못하게 제자리에 묶어두는 기능을 하는 것은 ‘ㄹ’과 ‘모음’ 사이에 內在된 자음적 요소로 말미암은 현상이다.
- (4) 이 음성적 환경에 내재된 자음적 요소는 유성음이어야 하며,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되지 않고 생략되는 /h/音과 같은 喉音系列의 音이다.
- (5) 이 음성적 환경에서 /-o-/은 ‘ㄱ>ㅇ’ ‘ㅂ>ㅃ>ㅇ’이라는 음운 변화를 입은 것으로 중세어의 ‘ㄹ’에서 /-o-/과 같은 적극적인 직능을 지닌 후두유성음이다.
- (6) 후두폐쇄음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언에서 考究된 바, ‘ㄷ변칙’용언과 /Xt-+/n/ → /l/로 동화되는 과정, 長音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sil(載)-’에 대응하는 ‘시끄다’가 있음에 주의했다.
- (7) ‘제주도방언에서 ‘ㄷ변칙’은 국어의 일반적인 원칙에 벗어나고 있어 동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변칙과 규칙의 중간에 위치한 결과를 보고자 한다.
- (8) /Xt-+/n/에서 /l/로 同化를 보이는 語尾는 의문형 ‘-냐’ 밖에는 없지만 간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 (9) 이러한 후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본다. ‘변칙’과 관계한 풍부한 어례를 찾는 작업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榮起(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
- 金完鎭(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위하여”, 「東亞文化」11,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 朴用厚(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徐暎錫(1981), “中世國語의 喉音研究”, 「韓國文化研究」3輯,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출판부.
- 李基文(1972,1977),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 이병건(1976),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 李崇寧(1976),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 李翊燮(1972), “江陵 方言의 形態音素論的 研究”, 「震檀學報」34, 震檀學會.
- (1982), 「嶺東 嶺西의 方語分化: 江原道의 言語地理學」, 서울大出版部.
- 田相範(1977), 「生成音韻論」, 塔出版社.
- 崔明玉(1978), “東南方言의 세 音素”, 「國語學」7, 國語學會.
- (1980), 「慶北 東海岸 方言研究」,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 (1982), 「月城 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出版部.
- 崔鉉培(1971), 「우리말본」, 정음사.
- 許 雄(1970), 「國語音韻學」, 정음사.
- 玄平孝(1962),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정연사.
- (1979),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 「方言」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1982), “方言”, 「濟州道誌」(下), 濟州道.
- Hyman, L.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